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는 3번째 글

노수정장로 강금했다고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 오히려 당회해산 명령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장로 등은 안수집사들이 당회에 난입을 해서 당회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선 지난 1월 6일의 정기 당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당회가 열리기 전, 집사들이 당회 원실로 찾아가 당시 임기가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당회에 참석하고 있는 노수정 장로에게 임기 문제를 격의없이 서로 얘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당회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며 결국 노장로는 스스로 일어나와 새신자실에서 집사들과 그의 임기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평온한 가운데 얘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우루루 새신자실로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당회가 열리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노장로가 나가자 성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회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쫓아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노장로와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고 당회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우리와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 노장로를 내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운데 소란이 벌어지자 박제임스장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게 우리가 노장로를 강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박제임스의 강금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라 당회원들을 해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당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 스스로 당회를 열지 않았고 경찰이 돌려보낸 것입니다.**

노수정장로 문제는 당회와 상관없는 개인의 문제

장로님들끼리 욕지껄이 오가는 난투극으로 당회무산

이어 1월 10일의 임시 당회의 경우입니다. 당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영송장로가 **“노수정장로의 임기문제는 노장로의 개인문제이지 당회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나가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말하자 당장에 노수정 장로가 “이새끼, 저새끼” 하면서 이장로에게 쌍욕을 하기 시작, 당회원간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박제임스 장로는 채홍인 장로덕에서 당회를 열겠다며 그들 패거리를 모두 끌고 갔고 그 자리에서 그들만이 모여 당회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당회는 노수정장로의 쌍욕으로 시작된 이영송장로와의 싸움으로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교회밖으로 장소를 옮겨 열렸습니다. 우리는 채홍인장로 댁까지 쫓아간 일이 없습니다. 결국 이날의 임시당회 중단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스스로의 파행이었습니다.

2월 3일의 당회는 노수정 장로가 물러가겠다는 발표를 하기로 했다는 연락이 와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날 당회는 각 부서장을 결정하는 등 아무런 일없이 진행됐습니다.

시큐리티 가드 6명 동원, 출입 통제

출동한 경찰 평온위해 당회해산 명령

다음으로 공동총회가 끝난 뒤 열린 3월 3일의 당회는 무시무시한 당회였습니다. 레스링선수 체격을 가진 6명의 시큐리티 가드가 동원돼 당회원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통제는 우리가 아니라 공동총회에서 새로운 시무장로로 선출된 4명의 장로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회원인 이영송장로는 이때 ID가 없어 입장이 거부돼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제임스장로는 또 경찰을 불렀습니다. 도착한 경찰은 평온을 위해서는 당회를 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당회원실로 올라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날 당회는 경찰이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이 박제임스 장로를 비롯한 6장로들이 우리가 당회를 하지 못하도록했다는 주장의 진상이며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직회 도중 사회보던 이영세장로 나가버려

사회자 없어지자 교인들이 사회자선출 진행

그들은 또 우리가 제직회와 공동회의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강목사가 떠난 뒤 처음으로 열렸던 제직회는 부끄럽고 창피한 제직회였습니다. 이날 제직회에서 발언자들은 노수정장로는 임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당장 떠나라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노수정 장로는 뒤로 나와 사회를 보고 있는 이영세 장로를 향해 큰 소리로 "이장로! 빨리 내려와 가자"고 여러차례 소리쳤고 이소리를 들은 이영세 장로는 아무런 설명없이 슬금슬금 연단에서 내려와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인 여러분! 사회자가 사라진 제직회, 한참 제직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자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경우를 보셨거나 아니 들어본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참석한 교인들은 할 수 없이 임시 회장을 선출, 제직회를 속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이번에는 "이 제직회는 무효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제임스장로 발언권 안주고 원로들 충고도 무시

사회자 나가자 참석교인들 사회자 뽑아 안건 통과

정기 공동회의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2월 21일에 열린 정기 공동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박제임스장로는 교인들의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발언자가 나와 제안을 했고 그 안건에대한 제청이 있었는데도 막무가네였습니다. 보다못해 원로장로들이 나와 회의의 진행을 그렇게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했는데도 발언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임동선 원로목사님이 직접 나와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제임스장로는 우물우물하다가 단상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사회자가 내려가 버리자 이날 공동회의도 참석 교인들이 임시당회장을 뽑아 속개시켜 예산을 통과시켰고 4명의 새 시무장로 인준과 권사, 안수집사 등 임직자들을 선임했고 각 부서장 등 교회의 모든 조직에대한 인준 등 정상적인 정기 공동회의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9일 박제임스 장로는 교인들 앞에서 그때 공동회의는 폐회동의가 있었고 제청이 있어 폐회했다고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당시의 상황은 CD에 보관돼있으므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제임스장로 정기공동회의 폐회했다고 주장 폐회했으면 공동회의는 끝난 것. 의미도 몰라

우리 교회 헌법에 정기 공동회의는 1년에 1번, 12월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제임스 장로의 말대로 폐회했다면 정기 공동회의는 끝났고 이제는 임시공동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임시공동회의는 미리 의제가 공고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공고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시공동회의가 열려도 아무런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제임스장로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당회는 5월 16일에 정기 공동회의를 연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양선교교회 교인 모두를 우습게보는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때 폐회했다면 예산을 통과하지도 않은채 몇달동안을 불법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또 각 부서의 부서장도 인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해온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교회는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박제임스장로는 이번 공동회의를 주제하면서 이런문제를 언급하지 않은채 어물쩍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집사들이 폭력적이고 집단으로 방해해서"라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능과 불법을 집사들의 폭력적인 방해로 포장하려는 유치한 의도를 갖고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박제임스,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장로등 6명이 교회적인 방법이 아닌 더더구나 성서적이 아닌 불법, 무도한 방법으로 우리교회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장주영목사, 뉴저지 작은교회서 시무. 장로들과 다투다 쫓겨나 재정국장으로 들어와 강목사위해 불법으로 현금빼돌린 비리의 주인공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장주영목사에 대해 박제임스장로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그가 누구냐는 질문에 아는바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장주영 목사는 1백 2-30명의 교인들이 나오는 동부의 작은 교회인 뉴저지 반석장로교회에서 시무했었습니다. 그곳에 부임한 뒤 실정에 맞지 않는 셀목장을 접목시키면서 장로님들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교인들은 장주영 목사는 융통성이 없고 저돌적이어서 장로

님들과의 마찰이 커지면서 4년전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때문에 그 교회는 아직도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장주영목사는 그곳에서 쫓겨난 뒤 한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LA에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급하게 알아본 장목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장목사가 1백여명의 작은 교회에서 시무하면서 장로들과 박터지게 싸우다가 쫓겨났고 이로 인해 교회가 반토막났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도 유능한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들과 싸웠다고 해서 나쁜목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장주영목사는 강준민목사에 의해 발탁돼 3년여를 우리교회 재정부 직원으로 근무해온 재정국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는 목사로 우리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목사가 5만달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낸 헌금에서 현찰로 만들어 바쳤고 변호사비용 10만불이 필요하다면 여기저기의 구좌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 돌려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지출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장주영 재정국장은 강목사의 지시로 여러분의 헌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비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본인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했으며 더구나 당회는 그런 인물을 기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장주영국장을 지난 연말에 부목사로 발령하더니 지난 3월에는 행정목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장국장을 1, 2, 3부 주일대예배의 설교자로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장주영 국장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한일도 있었습니다.

왜 박제임스를 비롯한 장로들은 장주영 국장을 감싸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강목사와 우리교회 장로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장주영 재정국장과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그 사이에 부정한 재정지출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제는 공생의 길을 가게 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장주영국장은 수년동안 뉴저지주의 교회에서 장로들과 싸워온 Knowhow를 이제는 우리 교회의 장로들 편에 서서 심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주영국장은 지금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이끄는 우리교회의 당회편에 서서 그들을 지원하는 모사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주전에는 장국장이 장로들에게 "LA에서 가장 큰 법률회사의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돈은 걱정하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마련하겠습니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비리의 온상에 앉아있던 사람이 회개하기는 커녕 다시 새로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교회의 강단에 올라가 매주일 1, 2, 3부예배의 설교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은 왜 안되는쪽으로만 우리교회를 이끌어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투명한 재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당회되기를

교회 수습대책위원회인 우리는 지난번 서신에서 말씀드린대로 몇명의 안수집사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있고 수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평신도 등 다양한 많은 사람들

의 모임입니다. 또 이들의 상당수는 60세에서 80세 이상의 나이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가?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등 장로 6명은 “일부 안수 집사들이 장로가 될려고 저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유언비어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장로의 선택의 첫 단계는 당회입니다. 당회에서 선출해서 공동회의에서 통과돼야 장로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규정때문에 장로가 되려면 맨 먼저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잘보여야 합니다. 장로가 되려는 안수집사들이 장로에게 찾아가 선물을 주고 밥을 사며 아부하는 비리는 우리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장로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리석거나 아니면 장로피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싸우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선 교회의 재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렵게 바친 헌금이 불법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모두의 바램입니다.** 채흥인 장로는 오후학교에서 보낸 돈이 여기 구좌에 이렇게 입금됐다고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우리는 어느구좌에 언제 입금됐느냐가 아니라 왜 재정보고에 8만달러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온 흔적이 없는 것은 부정으로 지출됐다는 증거입니다.

김 모집사는 연초에 세금보고를 위해 재정부에 현금내역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12월에 감사헌금과 십일조로 2천달러의 헌금을 했는데 현금봉투에 현금을 넣고 이름과 교인번호를 쓰고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김 집사님이 수년전부터 해온 방식으로 일반 헌금도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부 여직원은 장부를 보더니 130달러를 헌금했다고 답변했고 사실을 설명하면서 다시 살펴보라고 했는데도 그것 뿐이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교회 재정부는 혼란속에 빠져든 기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교회는 당회원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인들을 위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교인들을 위한 교회는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전체 교인들의 의견은 그만두고 그들편이 아닌 같은 당회원 장로들의 의견마저도 무시, 당회를 분열시키고 만 것입니다. 이들 장로들은 청개구리 마냥 오히려 교인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길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반대편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런데 6명의 장로들이 이끄는 우리 당회는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10여명씩 수차례 징계처분했고, 직분을 박탈했고, 하루 아침에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등 사랑이 없는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질이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의 이 어려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신다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으로 깨달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르게 판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양선교교회 수습대책위원회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을 하면 그 돈이 몽땅 시큐리티 카드 사용비용이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되고, 그나마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목사밑에서 수 백만달러에 이르는 우리들의 헌금을 빼돌린 하수인인 장주영 재정국장이 하는 설교를 매 주일마다 들어야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가조차 싫다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고 싸움만 있는 교회는 싫다는 교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안, 우리가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비상대책 특별기도회를 갖고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 월드미션 신학교 대 예배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와서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모임입니다.

이 특별기도회에는 우리교회에서도 시무하셨던 김성웅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능력있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매주일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흥회에 온것 같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기도회를 바로 우리들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믿음을 그대로 실현하는 모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직접찾아 오시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213-703-5700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선교교회 비상대책 특별기도회 안내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

장소 :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6층 대예배실.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추신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 지난 주 전 교인들에게 배부되고 큰 파장이 일자, 박제 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지난 주 예배시간에 사회자를 동원, "배달된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등 당황해 하면서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글의 모든 내용은 철저한 사실검증을 마친뒤 게재한 것입니다. 만일에 의문이나 더 알고 싶은 분 또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계신분은 213-703-5700

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